대한화학회

회원 4천5백여명의 최대학술단체
안암동 화학회관 건립…76년 사단법인으로

蔡永福 〈대한화학회 회장〉

1996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화학회」는 전국의 화학인 4천5백여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전문 학술 단체이다.

▲채영복 회장

「대한화학회」는 전문 학술지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화학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화학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화학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화학계를 대표하여 IUPAC(국제 순수 및 응용 화학 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연혁

「사단법인 대한화학회」는 1946년 7월7일 경성공업전문학교 강당에서 53명의 화학 관계 인사들에 의하여 「조선화학회」로 창립되었다. 당시 「화학회」는 순수화학뿐만 아니라 공업화학, 농예화학, 약학, 의학 등 응용화학 분야의 화학인 모두가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학술 단체였다.

해방 당시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셨던 6분 중 5분이 화학 및 응용화학 분야의 화학인이었고, 이태규박사와 이승기박사가 경도제국대학의 교수였을 정도로 화학 분야가 비교적 일찍부터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회에 앞서서 「화학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

극도로 혼란하였던 사회 여건으로 1948년 9월 6일에야 제1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화학회」는 1949년 그 명칭을 「대한화학회」로 바꾸고 첫 전문 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해방과 6·25로 인한 혼란으로 침체되었던 「화학회」의 활동은 1961년 간사장 제도의 시행(초대 간사장 김순경박사)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안동혁박사의 제안으로 창립 25주년이었던 1971년에 건립된 안암동의 「화학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197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전문 학술 단체로서의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학회의 국제적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IUPAC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FACS(아시아 화학회 연맹)과 AFMC(아시아 의약화학회 연맹)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화학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도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대한화학회」는 화학과 응용화학 분야의 화학인 모두를 대표하는 단체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 영역이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1963년 「한국화학공학회」가 분리되어 독립하였지만 최근까지 「대한화학회」의 회장을 순수화학 분야와 응용화학 분야에서 번갈아 맡아오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 밖에도 인접 분야의 학회들인 「한국고분자학회」, 「한국분석과학회」, 「대한생화학회」 및 「한국공업화학회」와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화학회」는 럭키그룹(회장 구자경)의 후원으로 내년에 완공되는 「한국과학기술회관」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과 조직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누어지며, 1994년 11월말 현재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4천2백40명이다(표 1 참조).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화학회」의 월간 뉴스 잡지인 「화학세계」를 무료로 제공하며,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4종의 전문 학술지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구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은 연회비와 구독회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교 교사인 회원에게는 화학교육 학술지인 「화학교육」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대한화학회」는 사무국이 위치한 서울 지역의 직할 지부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구성된 12개의 지부 및 2개의 지회와 전문 영역별로 구성된 10개의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회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부에 소속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원하는 전문 영역별 분과위원회에 가입하여 지부 및 분과위원회의 학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의 직접 우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기 1년의 회장은 「대한화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원들의 학회 업무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은 간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8명의 간사진이 맡고 있다.

또한 학회의 학술 활동과 기타 사회 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 기금위원회, 화학술어위원회, 화학기술진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출판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학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화학홍보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학술지의 편집은 각 학술지별로 구성된 '상임편집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임기 4년의 '상임편집위원'은 전공 분야별로 선임되어 학술논문을 직접 접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받은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상설위원회인 '화학술어위원회'는 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우리말 화학 술어 제정 사업을 전담하는 위원회로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화학술어집」을 발행하여 우리말 전문 술어 제정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유기화합물 명명법」, 「무기화합물 명명법」, 「우리말 효소 명명법」 등을 출판하였다.

「대한화학회」는 회원의 회비, 투고회비, 인세 수입, 광고 수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으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연 4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회 재정의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종신기금 약 2억원을 포함하여 7억원 정도의 특별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금의 약 50%가 회원들의 회비 및 투고회비로 충당되는 실정이어서 아직은 학회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요 사업

「대한화학회」는 우리나라 화학, 화학기술 및 화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학술 사업 및 기타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화학회」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화학 및 화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학술 사업이다. 「화학회」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뉴스 잡지인 「화학세계」 이외에 4종의 학술 잡지를 연 42권 발행하고 있다(표 2 참조).

특히 1980년에 창간한 영문 학술잡지인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81년부터 SCI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다.

학술지의 편집은 전문 영역별로 선임된 상임편집위원이 직접 맡고 있으며, 4종의 전문학술지를 통하여 연간 약 6백여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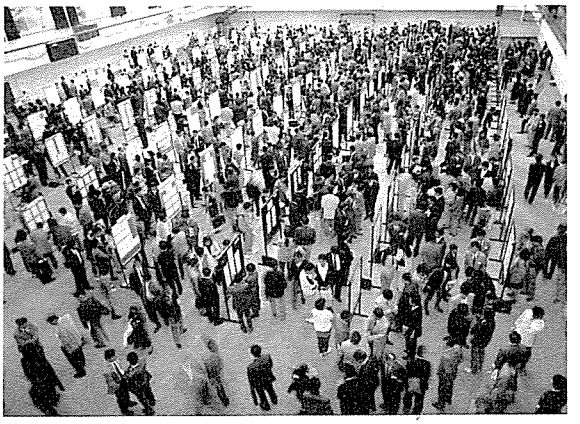
「화학회」는 매년 전국 규모의 춘계 및 추계 연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화학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74회 연회 및 총회는 1천5백여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7백여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회의였다.

연회에서는 일반 논문의 발표 이외에도 국내외의 저명 화학자를 초빙하여 기조강연과 초청강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화학 관련 산업계의 주요 인사를 초빙하여 '산학연(産學硏) 특별강연'도 개최하고 있다.

춘계 및 추계 총회에서는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였거나 화학계에 기여가 큰 화학인을 선정하여 '학술상', '학술진보상', '기술진보상', '화학교육진보상' 등을 수여하고 있으며, 93년부터는 우리나라 화학계의 개척자였으며 본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이태규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태규 학술상'을 제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학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산학연 심포지엄'과 '공업화학분석 세미나' 등도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지부 및 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 학회 간친회에서 한자리에 모인 1994년도 간사진



충북대학교에서 ▶ 개최되었던 제74회 연회에서의 포스터 발표모습

월간지 「화학세계」 발행 … 4종의 학술지도
96년 창립 50돌 앞두고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대한화학회」는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실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일반화학실험」, 「일반화학실험(비디오)」, 및 「눈으로 보는 화학(비디오)」을 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화학인의 정보를 담은 「화학인력총람 1993」 및 화학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한국화학제품 · 생산업체총람(1994)」을 발행하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인된 「대한화학회 표준주기율표」를 제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컴퓨터 정보화 추세에 따라 화학 정보의 컴퓨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처의 지원으로 「화학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물론 화학 관련 문헌의 초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신속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화학 및 화학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회의 발전 방향

「대한화학회」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화학 및 화학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술지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

할 것이며, 기초 과학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 증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화학인들의 연구 여건을 개선시키고 산학연 협력 체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화학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회」 등을 구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화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진, 많은 화학인들이 적극적으로 산업계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분야별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 「연구회」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화학회의 국제 활동 참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화학계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는 IUPAC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유도할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 보전에서의 화학의 역할이 중대함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화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그린 스카우트와 같은 환경 보호 시민 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학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민간 교사 단체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화학 및 화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학 관련 분야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분석과학회」 및 「대한생화학회」 등의 인접 학회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회원의 교류, 공동 사업의 추진 등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화학인력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전공 분야별로 과도하게 세분된 학회의 독립적인 활동은 학회의 영세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극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화학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접학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하여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길만이 우리나라의 화학 발전을 위하는 길임은 명백하다.

〈표2〉 학술잡지 발행 현황

학술지	창간년도	발행주기	언어
대한화학회지	1949	월간	혼용
화학교육	1974	계간	국어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980	월간	영어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1991	연2회	영어

창립 50돌 기념사업

1996년으로 다가오는 창립 50주년 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위원회'(대회장 한만운 전회장)을 구성하여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성대한 화학인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표1〉 회원의 구성

(94년 11월말 현재)

구 분	회 원 수
종신회원	1, 785
정회원	1, 123
학생회원	1, 332
단체회원	111
특별회원	54

1995년부터 시작될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은 「화학이 지구를 더 푸르게」를 구호로 하여 1997년까지 'IUPAC CHEMRAWN IX World Conference'를 비롯하여 6개의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1996년에는 국내외의 한민족 화학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성대한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념 우표의 발행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화학회 50년사」, 「화학인력총람」, 「화학술어집」, 「화합물 명명법」의 개정판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화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화학 기술의 발전이 현대 인류의 생활에 기여한 바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화학의 역할이 단순히 화학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인 기여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 보전은 물론 인류의 앞날에도 큰 기여를 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할 것이다.

「화학회」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화학인의 위상을 높이고 화학 및 화학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은 물론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화학회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ST